

토종의 美 전통 한지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14>



제16호 지장 장용훈씨

큰 길을 벗어나 조금만 셋길로 들어서면 울울창창 소나무숲이 계곡을 채우는 가평. 그곳에 1천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전통한지의 산실인 한지공방이 있다. 인터넷 등 각종 정보매체의 등장으로 종이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깃든 품모는 변치않고 있다.

부친에게 전통방식·제작방법 전수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6호 지장 장용훈씨(70)가 전통 한지를 만드는 가평군 의서면 상천리의 '장지방(張紙房)'. '장씨 생을 갖고있는 사람이 종이 만드는 일을 한다'는 이름의 장지방은 한지와 한평생 살아온 장씨의 작업장이자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다. 공방 주변에는 한지의 주원료인 다편나무가 환견에 정돈돼 있고, 스테인리스통에는 수백 기다의 다편을 물에 불리고 있었다. 공방 안에는 4명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삶은 다편나무 껍질의 티 고르기 작업에 여념이 없었고, 지장 장용훈씨는 좌우로 몇 차례 발을 움직이며 한지를 뜨고 있었다.



"종이를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평평하고 미끈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요" 장씨의 가게는 할아버지때부터 한지를 만들었다. 그 때는 전문직업이 아닌 부업이었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날 때 주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한지를 생산한 것은 장씨의 아버지때부터이며, 장씨는 전통 기술과 제작방식을 전수받았다. 현재는 12년 동안 작업을 하고있는 큰 아들 성우씨(37)와 작년부터 합류한 둘째 아들 갑진씨(30)가 대를 잇고 있다. 지금 장씨가 만드는 한지는 예전부터 중국과 일본에 명성을 날렸던 우리나라 특산품이다. 삼국시대 신라의 종이 '백지(白紙)'는 중국 사람들이 '천하제일지'라 격찬했으며, 조선시대는 중국, 일본에 가는 사신들이 인삼과 함께 챙겼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

두 아들 성우·갑진씨 代 이어

이 같은 이유는 한지의 높은 내구성 때문. 질긴 섬유질이 종이의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한지는 종이를 발명한 중국의 종이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중국의 종이는 다편나무를 원료로 하는데 다편나무의 짧은 섬유질은 종이가 끊겨 나오는 장점은 있지만 잘 찢어지거나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또 서양의 종이는 나무 속을 이용한 펄프에서 수십년이 지나면 부식되고 쉽게 색이 변하기 일쑤. 한지의 탁월함은 1천300여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형이 그대로인 세계 최고의 목판본이 찍힌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수한 한지의 비결은 좋은 원료에서 시작한다. 가평과 양평 인근 등에서 산출되는 다편나무는 섬유질이 많아 최고로 친다. 이 다편나무를 채취해 한 번 쪄 껍질을 벗긴다. 벗긴 껍질을 세척하고 다듬어 돌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그렇게 하면 섬유소가 납작하게 퍼지고 종이와 매끈하고 질겨진다. 그런데 이 과정이 꽤나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듬이질 기계를 이용한다. 잘 다듬어진 다편을 찻물에 넣고 삶는다. 찻물은 메밀대, 콩대, 고춧대 등을 태워서 얻는데 메밀대를 최고의 찻물로 친다. 다편이 찻물속에서 용해되면 바로 이 액을 뜬다. 종이 뜨기라고도 하는데 용해된 다편이 발에 얇게 불고 이것을 말리면 종이 가 된다.

가평·양평지역 다편나무 '최고 재료'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한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다. 그것도 전통방식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 장씨를 한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한술에 30kg에 달하는 다편을 삶는데 고르게 불을 때는 것과 다편을 돌에 놓고 두들기는 고해(叩解)과정에서 고루 두들겨야 양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값싼 중국산 종이와 난립하면서 한지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서울 인사동의 차물전에는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한지는 중국산(1장당 150~300원)에 비해 10배의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전통한지는 전문 서예가들이 주로 찾는 편이다. 장씨는 "요즘은 전통방식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며 "모두 수작업이라 한정된 양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특별히 거래처를 두지 않는다.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서예인들이나 한국화가, 한지공예가 등 한지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공방을 찾아온다. "직접 찾아와 전에 썼던 샘플을 보여주며 똑같은 것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단골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 주문을 받으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있어요" 손수 발품을 팔아가며 한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중에는 내로라 하는 한국화가와 서예인, 민화작가들이 많다. 잘나가는 교수직을 버리고 제주도도 낙향한 중견 한국화가 이월중씨는 20여년 단골이며, 종이원료인 다편나무 껍질로 작업을 펼치는 정창섭씨(전 서울대 교수)와 초창기 한국화의 추상화를 시도했던 이종상씨(전 서울대 교수)도 오랜 손님이다.

이월중·정창섭씨 등 유명화가 '단골'

장씨는 "대개 붓글씨를 쓰는 사람은 전통한지에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편나무의 섬유질 때문에 표면이 거칠고 먹이 잘 스미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처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값싼 중국산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해 표백시킨 일반화선지는 먹이 잘 스미기 때문에 이에 길들여져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친 한지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 장씨는 전통의 보존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문양 개발과 현대화된 기계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는 창조지 등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을 넣어 상품등록까지 마쳤다. 격자나 별문양 등 종이를 뜨는 발을 특수제작해 여러 문양의 종이를 만든 것. 그러나 하루동안 300여장을 뜨는 일반 한지에 비해 문양이 들어간 한지는 150여장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지의 종류도 갖가지다. 그의 작업장 옆 10여평의 공간에는 수십여 가지의 한지가 차곡차곡 쌓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옷걸이나 감물을 들인 중후한 멋의 한지를 비롯 발로 뜬 종이를 채 말리기 전에 20여회 주물렀다 피기를 반복한 '주름지' 등 질감과 형태가 다양한 한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장씨가 제작한 한지는 이웃나라 일본에도 알려져 1990년대 말 일본에 한지를 수출했다. 내달 말까지 5천장(2천200만원 상당)을 보낸 계획인데 장씨의 대를 잇고 있는 두 아들은 수출량을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자고 말하지만 장씨는 회의적이다. "수작업이 대부분인 한지 생산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출을 늘리면 국내 보급수량이 떨어 국내서 한지에 대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여기다 일본 수출길이 막힐 경우 국내 수요층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인테리어용 문양 넣은 한지도 제작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린 장씨는 한때 많게는 27명까지 직원을 거느렸다. 그러나 1984년 큰 물날리로 다편나무 재료와 장비 등이 모두 물에 떠내려 가는 불운을 겪었다. 여기서 3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던 터라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했다. "지분만 살짝 보일만큼 큰 물날리가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참 힘든 시절이었죠" 그 때 장씨에게 든든한 후원자는 다름 아닌 아내였다. '몸 건강하면 된 것 아니냐'며 시름에 빠진 장씨를 응원했다. 그 이후 장씨는 아내와 단 둘이 한지 작업에 매진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가을이면 공방은 관광객들 때문에 더욱 활기를 갖는다. 지난주에도 미국인 관광객과 미술관 및 박물관 관계자들이 찾아와 견학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는 시대에 종이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의 재료인 나무와 장인의 손길이 만나 만들어진 합작품 종이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